

## 수사기관(검사,경찰,금감원) 사칭형 보이스피싱 실제 통화 사례

### ◎ 접근 및 기망(속임) 단계

- ▶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바로 전화하여“당신 휴대전화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검사(검열)를 해야 하니(또는 복제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보내준 앱(악성 앱 또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해라.”
- ※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 뉴스 기사를 링크로 보내주며 겁을 주기도 함.
  - 이 사건은 특수부 특급사건이다 보니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건접수내역 조회가 안된다, 사이트 주소(숫자로 구성된 IP주소를 불러주기도 함)를 알려줄테니 사건내역을 확인해봐라.
- ※ 허위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위조 문서(공소장·구속영장 등)를 확인시켜 속개 만들거나 직접 카톡으로 위조된 수사협조의뢰 공문·구속영장·공무원증 등을 전송
  - “진실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지 알고 싶다면 메일로 사건 서류를 보내주겠다.”
- ▶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대포폰을 만들어서 수사 중이다. 당신 앞으로 70건 이상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불법자금은닉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불법대출, 국제금융사기, 국제금융거래법, 불법자금세탁법 위반 등) 혐의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범죄조직과 연관된 피의자인지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해야 한다, 금융거래추적 수사·범죄수익환수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접수인은 계좌양도 혐의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 ▶ 중고나라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했다. 명의 도용 피해자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 ▶“얼마 전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검거현장에서 대량의 체크카드와 대포통장을 발견했다. 그 중에 당신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도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 ◎ 이후 상품권(편번호) 편취

- ▶“내가 보내주는 앱(○○페이·페이북 등 간편결제 앱)을 다운받고 카드를 등록하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보겠다. 앱 내에 있는 PC결제 버튼을 눌러서 내가 알려주는 결제코드를 입력해라.”
-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계좌보호명목 승인번호가 전송될테니 알려달라.”
- ▶“대포폰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해지 금액이 필요한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조정해라.”

### ◎ 마무리 단계

- ▶“사건 피해규모가 크다보니 법무비가 필요하다. (이후 피해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쥐어야하는지 물으면) 이제 수사 막바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 ▶“금감원에 가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수사기록이 보안상 공개되면 안 되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라.”
- ▶“보안 차원에서 확인 절차가 끝나면 채팅 및 통화기록을 삭제해라.”(또는 범죄조직이 원격제어 앱을 통해 직접 삭제)